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
그림 김담비



유페이퍼



소년은 심심해.

마을 밖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놀 친구가 없어서 심심했던 소년은 들판을 굴러다니며 몸부림쳤어요.

늑대가 올지도 모르니 항상 양을 살피라는 주인아저씨의 말도 잊고 말이죠.



02

뒤늦게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초록 들판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양만 보였습니다.



"오,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



소년이 거짓말을 하다.

소년은 마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04

잠시 후, 주인아저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늑대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총으로 다 쏘 버리쑈 버리마!"





"사실은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소년은 주인아저씨의 표정을 보고 재밌다는 듯 웃었어요.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주인아저씨는 화를 내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06

며칠 뒤 소년은 다시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왔어요.

"너무 심심해! 또 늑대가 왔다고 장난칠까?"

결국 소년은 참지 못하고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시꺼멓고 아주 큰 늑대예요!"



주인아저씨가 총을 들고 헉헉대며 뛰어왔어요.

소년은 새발강게 달아오른 아저씨의 얼굴을 보며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네 이놈! 또 거짓말을 했구나!"



08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결국, 소년은 주인아저씨에게 단단히 혼이 났어요.
다음 날 소년이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왔어요.

"저 시꺼먼 것이 뭐지? 늑대잖아?"





소년은 양에게 달려드는 늑대를 보고 놀라서 넘어졌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제발 와 주세요! 빨리요!"

10

하지만 소년이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모두 소년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소년은 양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